

국내 유일의 정통 영국식 27홀 골프장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 “명품 퍼블릭 골프장으로 재탄생”



잉글랜드 6번

금강센테리움CC(대표이사 김종우, 충북 충주시 노은면 솔고개로 750)가 10월 14일부터 회원제에서 명품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재탄생했다. 2008년 6월 12일 양산디로 식재된 27홀 전 코스를 개장한 지 5년 4개월만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뀌는 것은 최근 국내 골프장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대중제 골프장이 되면 회원제에 비해 수익이 늘어난다. 회원가만 내는 회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회원제에 비해 세금도 싸다. 당연히 골프장 경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골프장 회원들이 보유한 회원권 가격만큼 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목돈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골프장도 있고, 또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골프장도 있다. 돈이 아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꾼 골프장은 이래 저래 관심의 대상이다. 10월 17일 오전 8시 15분 열게 안개가 낀 가운데 웨일즈 코스 1번 홀에서 티오프해 잉글랜드 홀까지 18홀을 돌았다. 라운드 후에는 김정관 본부장과 인터뷰를 하며 취재했다.

취재 김대진 편집국장 사진 금강센테리움CC 제공

‘골프장에 들어서면 엄마 품에 안긴 듯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 골프장 곳곳에는 20m 안팎의 금강송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어 센테리움(Centerium)’은 센테니얼(Centennial)과 ‘리움(Rium)의 합성어로’ 100년의 미래 가치를 뜻한다. 그만큼 값지고 귀중한 투자 가치가 있는 명문 골프장이란 뜻이다. 골프장 이름에 걸맞게 금강센테리움CC는 클럽하우스와 코스, 부대 시설 등이 모두 영국풍이다. 국내 어느 골프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색적이다. 자동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들어서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아늑한 분지 지형이다. 골프장 곳곳에는 키가 20m 안팎 되는 큰 소나무들이 많다. 상당수가 그 유명한 금강송이다. 경북 영양과 봉화 등지에서 갔다 심은 나무다. 강원도에서도 가져 왔다. 클럽하우스는 중세풍의 영국식 스타일이다. 영국의 어느 지방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



스코틀랜드 9번



웨일즈 9번

다. 마치 ‘더 오픈(The British Open)’이 열리는 스코틀랜드의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흡사하다. 하우스 내부에도 대연회장과 레스토랑,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중 소형 룸들이 마련돼 있다. 중 소형 룸이 이어진 2층 회랑 천장은 마치 서양 고딕식 건축물의 내부처럼 높고 시원하면서도 독특하다. 레스토랑과 연회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1층에서 스타트홀로 내려가는 계단 등에는 최고급 대리석을 깔아 최고급 호텔에 온 듯하다. 라커룸도 일정 규모씩 공간을 분리해 골퍼들이 프라이버시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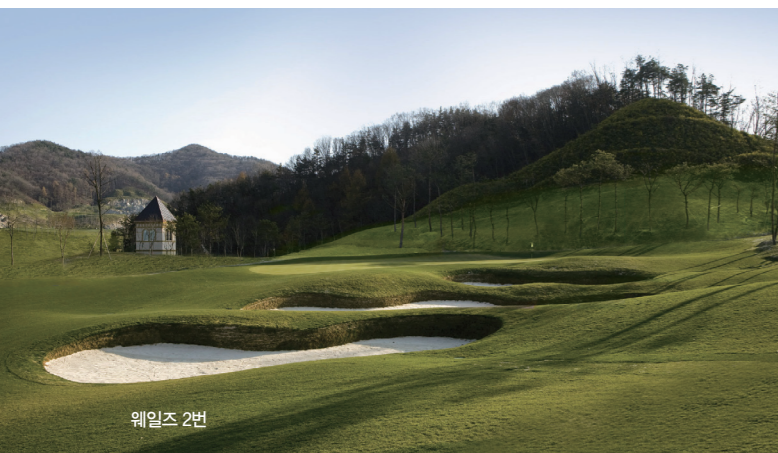
웨일즈 3번

지하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우스내 사우나룸도 넓고 시원하게 공간이 크다.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코스 설계는 모두 영국인 로버트 헌트(Robert Hunt)가 했다. 영국의 정통 혼(魂)을 담은 그의 설계는 코스에서도 여실히 묻어난다.

페어웨이의 심한 굴곡(언드레이션)과 항아리 모양의 깊은 bunker, 긴 러프가 돋보이는 ‘영국풍’ 콘셉트로 상급자용 고난이도 골프 코스가 특색

페어웨이의 굴곡(언드레이션)이 심하고 bunker가 원형 항아리 모양이다. 러프도 야생 그대로다. 양잔디(켄터키 블루그라스)가 심어진 페어웨이는 굴곡이 심해 초보 골퍼들은 볼을 정확하게 맞추기 쉽지 않다. 특히 내리막 경사에 볼이 있으면 더 어렵다. 샌드 bunker도 독특하다. 국내 어느 골프장을 가도 이와 비슷한 bunker를 찾

기가 어렵다. bunker의 턱을 거의 모두 수직으로 깎은 절벽처럼 만들어 놓았다. 일단 볼이 bunker에 빠지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제대로 빠져 나오면 그만큼 희열도 느낄 수 있다. 상당수 홀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보면 그린 주변에 2중 혹은 3중으로 bunker를 배치해 놓았다. bunker 턱이 사람 키만한 곳도 여럿 있다. 국내에서 bunker 턱이 높기로 이름난 여주 솔모로CC의 bunker를 연상케 한다. 솔모로CC의 bunker는 그린 쪽만 턱을 아주 높게 하고 페어웨이 쪽은 턱이 낮아 bunker 탈출에 자신이 없는 골퍼들은 아예 그린 뒤쪽으로 쳐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 bunker는 솔모로CC bunker와는 다르게 bunker 앞뒤 턱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항아리형 bunker다. 그래서 볼을 쳐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러프도 자연 그대로다. 때문에 한 때 일부 내장객들이 “왜 러프를 깎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고 볼멘 소리도 했다. 그래도 러프를 깎지 않았다. 코스의 콘셉트가 실력자, 상급자를 위한 코스였기 때문이다. 그게



웨일즈 2번



폭포 웨일즈 7번



스코틀랜드 9번

타 골프장과 경쟁력이며 차별화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한번 온 골퍼들의 재 방문율도 높다. 고난이도의 상급자 코스에 도전해 보려는 골퍼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했던 탓이다. 김 본부장은 “타 골프장보다 평균 5타 정도가 더 나온다”고 귀띔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코스가 제각각 특색을 갖고 있어, 골퍼들은 즐거움과 긴장감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판단과 노하우로 도전해 볼 만해

골프장은 43만평의 부지에 27홀로 조성돼 있다. 3개(각 9홀) 코스에 전장 10,594yd다. 코스 명칭은 ‘잉글랜드 코스’ ‘스코틀랜드 코스’ ‘웨일즈 코스’다. 코스마다 골퍼들이 즐거움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균형과 난이도를 조절해 만들었다. 전체적으로는 도전적이며 전략적인 골프 코스라고 할 수 있다. 난이도로 보면 스코틀랜드 코스가 가장 높다. 전장도 가장 길다. 특히 9번 홀은 워터 해저드와 bunker가 홀 전체에 도사리고 있어 골퍼들로서 부담이 큰 파 5, 롱홀이다. 페어웨이와 그린에 아일랜드(섬)로 돼 있다. 그린에 아일랜드로 돼 있는 골프장은 많지만 페어웨이까지 아일랜드로 돼 있는 골프장은 드물다. 그래서 더 어렵고 묘미가 각별하다.

대개의 골프장에선 18홀의 마지막 홀을 쉽게 혹은 평범하게 만들어 골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전혀 판판이다. 골프채를 놓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도록



한다. 웨일즈 코스는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 7번 홀은 전장 352m 파 4, 홀로 티샷을 정확하게 쳐야 하는 홀이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IP지점까지의 고도차가 24m 안팎이나 되는 심한 내리막 홀이다. 페어웨이 왼쪽은 깊은 골짜기, 그린 앞 쪽과 페어웨이 오른쪽은 워터 해저드가 이어져 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면 티샷을 어디로 쳐야 할 지 난감하다. 티샷 비거리가 너무 길어도 잘치고 볼을 해저드에 빠뜨리게 되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세컨 샷은 해저드를 건너 오르막 그린을 향해 치되 거리를 충분히 감안해 조금 길게 치는 것이 좋다.

잉글랜드 코스는 자연을 최대한 살린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2번 홀은 파 5, 507m로 산 중턱을 왼쪽으로 끼고 원형으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조성돼 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면 그린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 세컨 샷을 한 후 서드 샷 위치에서도 역시 그린 보이지 않아 처음 라운드하는 골퍼들은 애를 먹는다. 그러



나 도전적인 골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홀일 수도 있다. 파 4, 3번 홀 역시 티잉 그라운드에서 페어웨이가 왼쪽 일부 부만 보여 아주 좁은 것 같지만 2번 홀 언덕 밑에 숨은 부분이 꽤 있어 그린 왼쪽의 벙커 방향으로 정확하게 티샷만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 잔디는 아주 푸르고 풍성하다. 인근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27홀 전 홀에다 풍부하게 뿌려준 덕택이다. 바람도 많이 불지 않는다. 지형상 분지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계곡풍이 불어와 시원하다.

이 골프장은 그린 중앙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말뚝(거리목)을 페어웨이 가장자리가 아닌 페어웨이 중앙에 꽂아뒀다. 누구나 표지 말뚝을 쉽게 보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초보자도 거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티잉 그라운드에선 이 표지 말뚝을 보고 티샷을 하면 된다. 표지 말뚝이 거리 표시 뿐 아니라 IP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예약시스템도 올 프리제(All Free)다. 기한 없이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다. 몇 개월 뒤 부킹도 할 수 있다. 일찍 예약하면 어드밴티지도 있다. 5, 6개월 전에 예약하는 골퍼도 있다.



최근 시흥~평택~충주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부구간 완전 개통으로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 서울에선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이면 골프장 도착할 수 있어

금강센테리움CC는 최근 시흥~평택~충주 고속도로와 양평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이 완전 개통됨으로써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다. 기존의 도로와 함께 골프장 주변의 도로가 거미줄처럼 놓여져 골퍼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골프장을 드나들 수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5분이면 골프장에 닿는다. 서울에선 1시간 이내, 인천서 1시간 30분 안팎이면 골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선불카드제’와 ‘연간단체팀 운용’ ‘36홀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으로 골퍼들의 인기 끌어

금강센테리움CC는 대중제 전환과 함께 2014년 선불카드제도 시행 중이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김 본부장은 “회원제때부터 자주 오던 고정 내장객들을 안고 가려고 선불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선불카드는 1인용(오렌지, 500만원), 4인용(블랙, 1,600만원), 법인 주말용(블루, 4,000만원) 등 세 가지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혜택도 많다. 먼저 그린피가 훨씬 싸진다. 주중에는 8만5,000원 일요일과 토요일 2부에는 11만원이다. 선불카드가 없으면 주중 14만5,000원과 일요일(토요일 2부 포함) 16만원이다.

무기명카드는 개인이나 단체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블랙카드와 블루카드는 개수 관계없이 각각 3팀, 5팀까지 할인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카드소지자는 주말 예약 월 4회가 가능하고 토요일 1부 우선 부킹권도 가진다. 4명이 내장할 때는 카트비도 팀당 2만원이 할인된다. 패키지팀이 동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때는 카트비 할인이 없다. 선불카드는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비, 숙박비로 쓸 수 있다. 연간 단체팀과 36홀 패

키지팀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팀에겐 그린피가 대폭 할인돼 주중 8만원~10만5,000원, 일요일 12만~13만원이다. 이와함께 단체팀 3팀, 5팀, 7팀 이상마다 각각 1명, 2명, 3명 그린피를 면제해준다. 또 오찬이나 만찬 때 팀 객단가 3만원 이상일 때는 팀당 2만원을 할인해 준다. 5팀 이상 단체팀에는 요청할 경우 리무진 버스(28인승) 배차 및 지원금 30만원도 준다. 3팀 단체팀에는 12인승 승합차량 예약 대행도 해준다. 36홀 패키지는 36홀 골프라운드와 카트비, 아침식사비, 게스트룸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4인 1팀으로 구성해야 된다. 1인 기준 요금은 △월~목요일 27만원 △금~토요일 33만원 △토~일요일 38만원 △일~월요일 29만원이다. 캐디피와 식음료 비용은 별도다. 게스트룸은 클럽하우스 3층에 8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다. 게스트룸이 만실이 되면 골프장과 제휴해 놓은 쉐링턴호텔과 그랜드호텔, 유엔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다. 모두 골프장에서 자동차로 15분 이내 거리에 있다. 게스트룸은 내년 13개를 더 증축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대구나 구미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1박 2일 패키지 상품을 많이 이용한다”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중간지점에서 만나기가 수월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강센테리움CC 홈페이지(www.centeriumcc.com)를 참고하거나 클럽예약실 (043-842-8600) 또는 서울사무소(02-2019-0108)로 문의하면 된다. 